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지 면) 2.29.(목) 조간
(인터넷) 2.28.(수) 12:00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조성 본격,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결성

- 제도 시행('23.10월) 이후 4개월 만에 기금(펀드) 결성 성과
- 3월말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출자사업 진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결성되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23.10.19일 시행)으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제도화된 지 4개월 만에 실제 기금(펀드) 결성까지 이어진 것이다.

* 민간 벤처모기금(펀드)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기금(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기금(펀드)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펀드)을 의미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인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기금(펀드)'는 작년 11월 20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출범식을 통해 조성을 선포한 이후, 하나금융그룹의 100% 출자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하나벤처스가 운용한다.

하나금융그룹의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사업계획에 따르면, 하나벤처스는 3년간 약 600억원 규모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대상 출자사업을 진행하며, 나머지 400억원 내외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세컨더리 투자 등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출자사업은 '24.3월말 공고할 예정이며, 기금(펀드) 결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신인(루키)대전(리그)을 포함하여 25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이후 '25년, '26년에 각각 180억원 내외를 출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한국벤처투자 – 하나벤처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18년간 모태기금(펀드)를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출자사업 평가, 자기금(펀드) 사후관리 등의 요령(노하우)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결성은 본격적인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라면서, “하나금융그룹의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가 업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하나벤처스 안선종 사장은 “제1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인 ‘하나초격차 상생재간접기금(펀드)’는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로 ‘모두와 함께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진심을 담고 있다”라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민간자본 공급 역할을 담당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4-7712)
			주무관	진명철 (044-204-7716)
			전문위원	고석홍 (044-204-76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